

ITNeT News

ITNet CEO Message



ITNet의 필요성

4년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재조명 해 보고 이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권면 하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세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시작하면서 몇달간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시대를 살아 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특별하게도 이 지역은 전세계에서 내노라하는 기업들과 첨단기술들이 모여 있는 실리콘 밸리이고, 전문 직장인 또는 사업가라는 우리 신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역할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Continued on Page 2)

Pastor Hoon Lee Column



기다림의 기쁨으로 산다는 것

목사님 한분이 수영강습을 받는데 도무지 몸이 물에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이 수영 배우는 분들은 물 위에 잘 뜨고, 그 다음 동작을 배우는데, 정작 본인은 일주일도 지나도 몸이 물 위에 뜨지 않는데요. 답답해한 수영강사가 '저... 아버님, 믿으세요! 믿어야 몸이 물에 뜨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믿으라고 강권합니다. '아, 믿음은 물속에서도 필요하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Continued on Page 4)

Expert's Column

IT Net이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업은 엄연한 사회의 경제적, 기업적, 문화적 활동의 주체이며, 현대사회에는 그 영역이 지역을 벗어나 전세계로 향하고 있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매출과 인위적인 브랜드만으로 평가되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닌 사회적 가치와 기여도가 평가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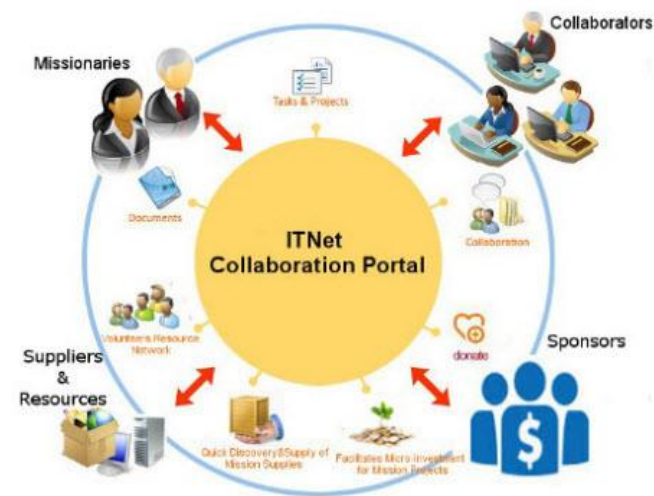
2000년 이후 인터넷 정보화 시대 이후 엄청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혁명적 시대 변화에 다 적응하기 이전 또 다른 혁명을 맞게 되는 급변하고 긴밀히 연결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적자생존과 양육강식의 논리만 가지고는 충분한 기업 생존 및 혁신의 시대를 대응 할 수가 없다. 오늘의 기업 경영 환경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공동체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통합 (Integration) 및 융합 (Fusion)을 통해 리더십을 증명 해야만 선택 받는 환경이 되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사업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더라도 글로벌 공동체와 맞물려 발전과 혁신 가능성을 증명하여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 빠르게 소멸되어 간다. 글로벌 공동체 개개인의 선택과 성향이 극대화 되고 다양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선 통신과 인터넷으로 글로벌 공동체 시장에 맞물려 초기 혁신을 통해 급 성장 하였던 기업들이 순식간에 그 설자리를 잃어 버리는 현상들은 시장 변동에 긴밀히 맞물리지 못한 이탈 현상으로 볼수 있다.

(Continued on Page 6)

ITNet의 필요성

4년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재조명 해 보고 이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권면 하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세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시작하면서 몇달간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시대를 살아 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특별하게도 이 지역은 전세계에서 내노라하는 기업들과 첨단기술들이 모여 있는 실리콘 벨리이고, 전문 직장인 또는 사업가라는 우리 신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역할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은 70여개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를들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만 해도 베이 지역에 4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 되는 민족적인 다양성을 포함하여, 그야말로 모든 선진정보 기술과 첨단기술 인력들이 총집합을 하고 있는 정말로 특별한 지역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는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엔지니어들이거나, 그러면서 박사급 인력들도 매우 흔하며, 회계사/ 변호사등의 다른 전문인들도 대부분이 첨단기업들과 관계가 되어 있고 깊은 이해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과소 평가해도, 이분들이 선교지를 원격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직접 선교지로 가서 단기로나마 본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전문인 선교활동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 됩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Online 상에서 먼저 선교사님들과, 그에 따른 후원 그룹들이 연결되어 즉각적이고 일상적인 소통과 지원이 이뤄진다면 매우 훌륭한 Tool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저희 IT Net은 일차적으로 전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선교지 블로그" 웹사이트를 개설 하였습니다. 특정 교회나 교단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 있는 선교국가를 Click 하시면, 그곳에는 그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의 선교지 소식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고, 선교지의 생생한 소식과 그에 따른 관심/ 기도/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 하나는, Dropbox를 사용해서 Cloud base로 "성경공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신 후 몇 년동안 전도 하시고 겨우 Church planting이 가능해지는 시점에는 정작 성경공부나 제자 교육에 사용하실 자료들이 부족하셔서, 그때에 급박하게 한국의 교회나 선교단체에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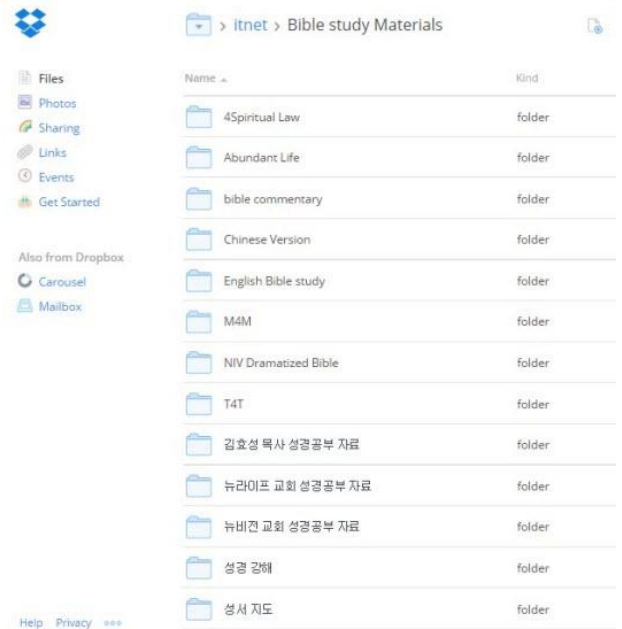
저희는 선교지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성경공부 자료들을, 나라별/ 언어별/ 나이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조회 및 열람 하시고, 또한 Download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에게도 Dropbox상에 별도의 Cyber 저장공간을 드러서, 다른 장소에 가서서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지원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많이 참여 하시게 되면 그 효과는 쉽게 배가가 됩니다. 베이 지역의 대형 교회들이 성경공부 자료들을 올려 주시면, 선교사님들 그룹만 혜택을 볼 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사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Online 상에서도 뭉치면 큰 힘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IT Net은, 이곳 실리콘 밸리에서 넘쳐나는 기술중 선교지에 필요한 적정기술을 찾아 내고, 선교지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만한 제품 또는 솔루션을 발굴 하여, 선교지에 비즈니스로서 정착하는 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직접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지의 전도 대상자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방법입니다. 선교지 현지에서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알기에는 힘든 제품 또는 솔루션이지만, 낙후된 선교지의 특성에 맞게 사업성이 매우 높은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마워하고 감동이 생겨야 전도도 되고 선교사님들도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IT Net이 필요한 이유들이었지만, 혼자서는 안되고 뭉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침노하여 확장되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혼자서는 안되고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순범 집사

기다림의 기쁨으로 산다는 것

목사님 한분이 수영강습을 받는데 도무지 몸이 물에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이 수영 배우는 분들은 물 위에 잘 뜨고, 그 다음 동작을 배우는데, 정작 본인은 일주일이 지나도 몸이 물 위에 뜨지 않는데요. 답답해한 수영강사가 '저... 아버지, 믿으세요! 믿어야 몸이 물에 뜨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믿으라고 강권합니다. '아, 믿음은 물속에서도 필요하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나 필요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어느 단체에서도 믿음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몸을 물에 맡기는 믿음이 없으면 물위에 뜨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마치 지나가는 바람같이 스쳐갑니다. 돌아서면 눈 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변덕스러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다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라면 끓이는 것을 배워 냄비를 올려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각대로 당장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 몇 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지켜서 있습니다. 그러나 끓여 본 사람이라면, 적당히 기다렸다가 라면 넣고 먹을 것을 기대하며 즐깁니다. 우리는 마치 라면을 처음 끓이는 아이처럼 기다림이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다림 속에 갈등하기도 하고 기다림 속에 낙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에 지쳐 그 끈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훈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리 돼 조바심 갖지 말고, 불안해 하지 말고,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겸손을 배우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가마솥 아궁이에서 고구마를 굽던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군고구마를 빨리 먹고 싶은 생각에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고구마를 집어 넣으면, 그날은 익지도 않은 시커멓게 탄 고구마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술만 시커먼 재로 범벅이 됩니다. 쓰니 쓴 경험을 몇 번하고 난 후에서야 은근한 불의 가장 자리에 고구마를 넣고, 저녁이 되어 맛있게 구워진 고구마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잘 익었을 것 같이 보이는 고구마도 한번쯤은 확인해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는 설익은 고구마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꾸욱 찌러보고, 잘 익은 군고구마의 달콤한 맛을 즐기던 일이 생각납니다. 맛있는 고구마를 먹는 데에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익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한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는 하나님의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은혜가 충만한 신앙인들도 실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다고 해서 기다림이 없이 선뜻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금방이라도 딱딱히 굳은 땅이 옥토가 되듯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새로운 꿈을 향하여 서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하는 분이 타주에서 이사 온지 일주일 안되 상가를 계약하고 상품을 진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실 수 있을까? 물으니, 지도를 4분의 1로 접어서 그 접히는 중심 점이 그 도시에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근처 상가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운이 좋아 사업이 잘 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고 운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언제 행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막막한 현실 속에서 마냥 기다려야 한다면 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여전히 불안함에도 기다림과 정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빠진다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고 기쁨으로 사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라는 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단지 바람 일뿐입니다. 이러한 바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인 증거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상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증해주는 능력을 신뢰할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나의 손에 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분명한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동전만 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려는 용기와 믿음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기 보다는, 기다림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훈 목사

IT Net이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업은 엄연한 사회의 경제적, 기업적, 문화적 활동의 주체이며, 현대사회에는 그 영역이 지역을 벗어나 전세계로 향하고 있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매출과 인위적인 브랜드만으로 평가되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닌 사회적 가치와 기여도가 평가 받고 있다.

2000년 이후 인터넷 정보화 시대 이후 엄청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혁명적 시대 변화에 다 적응하기 이전 또 다른 혁명을 맞게 되는 급변하고 긴밀히 연결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적자생존과 양육강식의 논리만 가지고는 충분한 기업 생존 및 혁신의 시대를 대응 할 수가 없다. 오늘의 기업 경영 환경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공동체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통합 (Integration) 및 융합 (Fusion)을 통해 리더십을 증명 해야만 선택 받는 환경이 되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사업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라도 글로벌 공동체와 맞물려 발전과 혁신 가능성을 증명하여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 빠르게 소멸되어 간다. 글로벌 공동체 개개인의 선택과 성향이 극대화 되고 다양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선 통신과 인터넷으로 글로벌 공동체 시장에 맞물려 초기 혁신을 통해 급 성장 하였던 기업들이 순식간에 그 설자리를 잃어 버리는 현상들은 시장 변동에 긴밀히 맞물리지 못한 이탈 현상으로 볼수 있다.

또한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 교수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 에서 처럼, 엄청난 교통 통신의 발달로 긴밀히 연결된 글로벌 공동체 시스템에서는 개개인의 '자발적 협업'과 '그룹'으로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개인 뿐만 아닌 기업도 제품과 사업 결과만이 아닌 사회적 주체로써 판단받고, 이러한 영향력 속에서 'Giver' 는 지지 받고 'Taker'는 응징 받는 문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결과로 'Giver'의 성향을 가진 회사는 그 성향이 사업에도 반영 생산성 혁신과 강력한 고객 서비스로 더욱더 선택 받고, 적자생존의 'Taker' 방식의 회사들은 협업에서 밀려나 결국 도태 된다.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글로벌 공동체와 맞물리기' 및 'Giver 문화의 기업'이 되는 것은 기업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소 및 철학이 되어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의 새로운 접근과 패러다임을 제시 한다. 앞서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CSR 방식인 자선 및 기부를 넘어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그 방식을 모색하고 활용 하여, 기업의 CSR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비용에서 매출보다 더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 행위가 될수 있음을 인식 하여야 한다.

IT Net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CSR Program)으로 자선과 기부가 아닌, 더 진취적인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 설립 및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이윤 창출은 일반 기업과 같지만 이익을 주주에게 돌리지 않고 재투자 하는 기업 형태를 추천한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준 있는 사업모델이 구축된다면 지속적인 고용과 이익의 재 투자로 기업 성장을 추구 할 수 있다. 특히 IT Net은 사업 모델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미국 '실리콘 밸리' 기업중에서 CSR Program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 할 경우, 실리콘 밸리의 '자발적 협업'을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 들을 참여 시켜 '수준 높은' 사업 모델 및 지속적인 혁신 지원이 가능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의 사회적 기업은,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들에서 사업을 하며 얻은 이익을 일정 이상 단순한 자선 기부가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적 모델' 로 환원 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로 추진 될 수 있겠고, 현지 지역에 불합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수준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써 중장기적 목표로 삼고, 단지 이익 공유 뿐만이 아닌 기업의 'Mission Statement'으로 삼고 이를 추진할 제도를 만들어 보다 실천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선교 지향적인 기업인들은, 빈부격차 및 신앙이 무슬림으로만 쏠려 있는 마지막 선교지를 바라 보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선진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들의 삶터에 소개되고 정착되어 갈때, 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마음 문을 열게되고 크리스찬들을 신뢰하게 되는 길에 동참하게 됨을 믿어 마지 않는다.